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생 바로알기

흐남 문화

법과 질서



김석주

탐욕을 버리면 건강의 이정표가 보인다

교육의 시작이고, 우리의 그리움인 것이... '집안의 귀염둥이가 밖에서는 천덕꾸러기가 된다.' 라는 말이 있다.

불교에서는 탐욕을 가리켜 착한 인간의 마음을 해치는 3독 중의 으뜸이라 했으며, 성경에서는 '재물은 따라오는 것이니 욕심대로 쫓아가지 말라.' 고 했고, 예수는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설교하였다.

인간이 꿈꾸는 욕심은 끝이 없다. 소유와 함께 소비가 늘면 행복에 대한 갈증과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인간이 좋아하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겠지만, 피와 땀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지혜는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돈을 가지고 많은 약품을 살 수 있어도, 하나 밖에 없는 건강은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과욕으로 성공한 사람의 삶은 어느 정도 만족스럽겠지만 아마도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소유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한없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인생은 고해라는 말과 같이 삶에는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이지만,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비틀거리 필요는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은 항상 그 말과 같은 표정이며, 그의 삶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에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하며 삶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랑하게 살아가는 긍정적인 사람은 불행의 터널을 지나 결국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사람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고 하지만 언어학자들은 말이 생각을 이끌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은 항상 아끼고 조심해야 하며 마지막 말은 아껴두도록 하자.

생각이 반복되어 나타난 것이 행동이고,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난 것이 습관이 되며, 결국 이 습관이 인간의 운명을 만들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다.

생각은 보는 것으로 형성되기에 우리가 과욕을 버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보일 것이다.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 행동, 습관, 성품, 운명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어두운 곳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나의 색깔을 위해서는 왕따나 은따(은근한 따돌림) 좁은 의식하지 말고 나만의 정직한 양심이 살아있는 밝은 톤으로 나를 지키며, 탐욕과 무거운 것 모두 내려놓고 건강을 관리하는 맘을 흘려라.

〈한국전통문화교육원 향원당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고칼럼



이원재

오늘만이라도 정도를 걷자

만 결론 우리에겐 반성이나 잘못을 시인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배고프다고 다 밥의 집 탐을 넣는 것이 당연하다면 어찌 그것을 옳다고 응답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는 정도가 있다. 혹 정도를 가다가 결길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도를 가다가 합치면 의도를 해도 된다는 말은 옳지 않다.

한 가지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불안해서일 것이다. 왜 불안할까? 확실한 목표를 달성하려는데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곡선이면서 직선 행세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진실이 거짓과 위선에 묻혀 버린 감이 들 때도 많다. 분명 아닌데 그것이 옳다고도 한다. 또 그것이 옳은 것으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경우

도 적지 않다. 그러나 더욱 험갈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버려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진리이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하나도 없다.

한 가지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불안해서일 것이다. 왜 불안할까? 확실한 목표를 달성하려는데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사록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누군가는 모델이 되어야 할

다. 모든 사람이 곡선을 직선처럼 살아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한다.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살았던 선지자들도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윤리 도덕은 이미 무너졌고 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있는 자가 세상을 마음대로 뒤 흔들고 쓰는 것이 법이고 위도 아래도 없고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저주고 있다.

이런 데 예를 날 시원한 냉수 같은 것이 없을까? 있다. 세상은 지나가는 것. 내가 왔다가 가는 세월은 극히 짧다. 인생 칠십 백세를 산다고 해도 내가 머물렀다가 가는 시간은 여름날 오침과 같은 것. 풀에 이슬 같은 것이라 했으니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아 놓고 끈게 살아. 오늘 만든 정도를 걷자. (무등교회 목사)

기고



최영화

지역 연극의 문화화를 꿈꾸다

했다.

이밖에도 특별프로그램으로 마련된 빛고을 '7개년 프로젝트'는 시민 참여형 오픈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드라마버스가 지나갈 때 시민들은 신기함을 감추지 않았다. 개막공연이 끝난 후, 폐막전야 등 시민파티 '외롭다면'은 생생한 잔과 바비큐 한입에, 공연 뒤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음을 선사하였다. 특히 이번 연극제는 광주문화의 고급성을 과시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주제의 선정, 스토리텔링, 디자인 등이 문화광주다운 차별성과 세련됨으로 잘 처리된 무대였다. 역시 광주는 달랐다.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이제 왜 이렇게 안 되었는지, 또 되었는지 하나 하나 들추어 살펴야 한다.그래야 하나의 행동이 뒤에 따라올 행동 하나 하나에 의미로 이어주

고 의미 있는 축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야 문화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지역광주를 생각하고 광주문화를 생각해 보았다 그때마다 간혹 드는 생각이, 따라하지 말자는 것이다. 광주연극에 한 정하여 말하자면, 광주연극이 잘되는 길은 대학로처럼 똑같이 흉내 내는 일이 아니다. 대학로는 서울이 만들어낸 연극거리이고 또 문화화 되었지만 광주도 똑 같이 한곳에 거리 만들고 '여기가 광주의 대학로 그 문화의 거리입니다' 라고 나뉠 필요는 없다.

대학로는 서울의 연극문화, 대학로의 연극은 서울의 연극 그렇다면 광주의 연극문화는? 광주의 연극은? 우리는 우리식의 해법을 찾아야한다. 대학로 연극이 문화화 되었듯이 광주의 연극, 그 무엇으로 문화화할 것인가를 광주 연극인들이, 광주사람들이 고민할 일이다.

문화! 얼마나 멋진 말인가? 그리고 얼마나

나 근사한 키워드인가! 그것을 광주가 움켜쥐었으니 다들 부러워할 일이다. 문제는 이것을 축적시켜 사회화하는 일이다. 해답은 우리에게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광주의 것인가? 광주를 소재로 이야기하는 것? 당연히 광주의 것이야. 518, 무등산, 김덕령, 관소리... 그런데 광주의 '사람'들이 하는 일 모든 것 또한 광주의 것 아닐까? 오히려 외지 사람이 말하는 수많은 광주이야기보다 지금 광주를 살아가는, 광주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광주의 것이 아닐까? 518도 과거 어떠한 영웅의 이야기나 설화들도 당시 광주의 사람이 내 던진 인류 보편적 가치가 아니었을까? 광주 컨텐츠란 이런 것이다.

이제 광주의 것을 찾아야 할 때이다. 해답은 광주사람에 있다. 광주사람이 서울사람, 프랑스 사람, 뉴욕사람 따라 하지 말고 좋은 점 있거들랑 본분이다가 광주생활에 배양해야, 광주식으로 배양해야 광주 것이 되는 것이다. 연극연극제를 하면서 느낀 점, 지역연극은 중앙의 변방에서 머물면서 따라하는 일이 아니다. (광주 연극협회장)

시설

불법선거 엄단 의지 보여준 재판부 판결

전직 동장 투신 사망사건을 부른 광주 동구 국회의원 조직선거와 관련, 재판부가 박주선 의원과 유대명 동구청장에게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확정 판결이 아닌 1심이지만 현역 의원과 단체장에게 나란히 징역 2년의 실형을, 여기에다 박 의원의 경우 검찰 구형 1년보다 무거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27일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며, 박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과 직위 상실형인 징역 2년 형을 선고하는 등 동구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돼 기소된 30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청장을 법정구속했고, 박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 체포요구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동구 불법 선거는 12명 구속 기소, 17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중지 등 30명에 이르는 일진 규모로만 보더라도 단일 선거 부정사건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전직 동장은 숨졌고, 평

범한 주부 등 다수가 구속됐다. 재판부의 중형 선고는 무엇보다 불법선거에 대한 엄단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이 민주주의의 축재여야 할 선거가 피, 눈물, 돈으로 얼룩진 데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이를 뒷받침해주는 셈이다.

물론 당사자들의 항소가 이어지면서 최종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선고가 현재 진행 중인 불법선거 관련 재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는 크다. 또한 선거 후보자와 지역민들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선거에 현혹될 경우 모두에게 불행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편으로 동구청은 부구청장 대행체제로 행정을 펴야 하는 만큼 각종 사업과 대민업무에 혼들림이 없도록 공직자 모두 긴장을 갖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3D 사업'美 회사에 끌려다닐 건가

무리한 투자 논란에 휩싸인 광주시의 한·미합작 '입체영상 변환(3D컨버팅)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파트너 업체인 K2AM이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한 미국 현지의 기술력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K2AM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원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말 K2AM에 대해 실체가 불분명하고 원천 기술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다. 광주시가 원천 기술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강문대 시장도 28일 기자회견에서 "K2AM이 원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회사가 가지는 기술을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 철저한 검증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문제는 K2AM의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사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K2AM은 광주시가 지금까지 송금한 650만 달러(72억 원) 외에 추가로 460만 달러(50억 원)를 보내주면 기술력을 입증하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 또 광주시가 투자한 콘텐츠 제작사업인 겐코와 맺은 계약서에 3월 말까지 본격적인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채 검증시한을 이달 말로 미뤘다.

시민단체와 의회가 사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술 확인 없이 K2AM에 무리한 투자를 한 광주시와 강 시장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광주시는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계약 과정과 실행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K2AM에 끌려다니는 것도 모라자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이라면 의혹만 키울 뿐이다. 총인시설 일할 비리와 수술통 요양사업 등으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시민들로서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無等鼓

위나라 조조의 셋째 아들 조식의 글재주는 단연 불군이였다. 큰 아들 조비도 문재(文才)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였지만 동생이엔 비길바가 못했다. 이런 까닭에 조비는 어릴적부터 동생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자랐다.

태자 계승 암투에서 승리한 조비는 왕이 된 후 시호를 스스로 '문제(文帝)'라고 짓고 대대적으로 조식 측근들의 숙청에 나섰다.

동생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엄격한 감시하에 해마다 봉지를 옮겨 살도록 강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회 석상에서 조비는 조식에게 자기가 일곱 걸음을 걷는 동안에 시를 지으라고 명령했다. 만약

그 동안에 시를 짓지 못하면 칫명(勅命)을 어긴 이유로 중벌에 처한다고 했다. 아무리 글재주가 뛰어나더라도 그 시간 시를 짓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해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조식은 걸음을 옮기며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공대를 뒤희서 콩을 삶으니/ 가마솥 속에 있는 콩이 우는구

나/ 분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어찌하여 이다지도 급히 삶아대는가"

형을 풍대에, 자신을 콩에 비유하여 육친의 불화를 상징적으로 노래한 이시가 바로 그 유명한 '칠보시(七步詩)'이다. '부모를 같이 하는 친형제간인데 어찌서 이렇게 자기를 들볶는 것이냐'는 뜻을 던지시 읊은 것이었다. 조비는 이 시를 듣자 민망하여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시의 첫 문단 한자인 '자두연기(煮豆燃箕)'는 이때부터 형제간의 다툼을 뜻하는 고사성어로 쓰이게 됐다. 하지만 칠보시를 짓기로 조비와 조식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점에서 역설적이게도 혈육의 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한다.

상속재산을 놓고 벌이는 삼성(家)의 법정다툼이 점입가경이다. 27일 열린 두번째 재판에서는 피고측인 이진희씨와 원고측인 형남 이명희, 누나 이숙희씨가 감정싸움을 벌여 반쪽을 썼다. 골육상정의 '자두연기'가 혈육의 정으로 반전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y@kwangju.co.kr



보호관찰소 수용자 농촌 일손돕기 확대 시행했으면

농촌에서는 이제 아주 바쁜 농번기라 농민들이 일터로 나가서 사는 계절이다. 지금부터 올 가을 추수기까지 농촌에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건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일전에 텔레비전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농촌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힘이 되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교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내용을 접한 적 있다.

그 예로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봄에 군산, 익산의 농촌 일손돕기를 위해 사회봉

사 명령자 800여 명이 나섰는데 농가들도 좋아하고 사회봉사자들도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원래 사회봉사명령자는 솔직히 시간 때우기조차 지겨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농촌의 일손을 돕는다는 스스로의 생각이 교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물론 일손을 지원받은 농촌은 그만큼 고마움이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 사회봉사자들의 일손을 지원받은 농촌은 보호관찰소와 1사1촌 자매결연까지 맺고 앞으로 상시 농촌 일손돕기는 물론, 농촌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우리 농산물을 싸게

팔기도 했더니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런 일인가.

농가들이 정성껏 준비한 새참을 함께 먹고 들뜬에서 땀을 흘린 사회봉사자들은 마음을 열고 열심히 일하면서 교화의 효과가 커서 보호관찰소도 대만족이었다고 한다.

보호관찰소가 있는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일손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한 보호관찰소뿐만 아니라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곳의 수용자들도 농촌돕기를 한다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법무부는 물론이려니와 정부 교정당국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이런 방식의 농촌 일손돕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종연·곡성군 석곡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민석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광고문의 062-227-9600